

의료네트워크와 손잡고 장애정도심사 혁신 시동

국민연금공단,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나머지 7개 부속병원도 순차 확대 예정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심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최대 의료네트워크와 손을 맞잡았다. 공단은 지난 1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원장 이지열)과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장애정도심사 과정의 디지털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앞으로 장애정도심사 보완자료를 서울성모병원과 전자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그동안 민원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거나, 공단이 병원 측으로부터 우편으로 자료를 수신해야 하는 불편한 절차가 존재했지만, 이번 협약으로 모든 과정이 전자화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크게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심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최대 의료네트워크와 손을 맞잡았다

향상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서류 처리 절차가 간소화돼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심사 결과 통보 기간 역

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서울성모병원뿐 아니라, 동일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7개 부속병원으로도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

다. 이를 통해 공단은 진료정보교류네트워크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고, 의료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실현할 계획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약 23만 건의 장애정도심사를 통해 15만 명 이상을 신규 등록하고 있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네트워크를 보유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협력은 장애정도심사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의료기관과의 진료정보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심사의 신속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 'Lovely Concert 중소기업사랑나눔콘서트' 부산서 성료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따뜻한 음악의 향연을 선사했다.

두 기관은 지난 16일 부산 벡스코(BEXCO) 오디토리움에서 'Lovely Concert 중소기업사랑나눔콘서트 부산'을 열고, 영남권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2천여 명의 관람객에게 위로와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계 종사자들에게 예술을 통한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중소기업사랑나눔콘서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 콘서트는 권역별로 총 6회 열리며, 이번 부산 공연은 네 번째 무대였다.

이번 콘서트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와 윤승업 지휘자, 진성원 테너, 길병민 바리톤, 박소영 소프라노, 고아라 재즈보컬리스트, 하모나이즈 소파이어그룹 등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꾸몄다.

이들은 대중에게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영화 OST, 추억의 팝송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곡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룬 영상 연출이 더해져 현장은 한층 더 감동적인 분위기로 물들었다.

/오상근기자

바이오진흥원,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워크숍 개최

기술 성과 공유·네트워킹으로 실용화 기반 강화... 전국 유관기관 참여로 협력 확대 기대

전북지역 바이오산업의 중추적 기관인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이 메디바이오 산업의 핵심소재 기술개발과 실용화 기반 강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16일 전주시 데메이 호텔에서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사업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메디바이오(Medibio)는 신약·코스메슈티컬(화장품+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의료바이오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융복합 바이오소재를 일컫는다. 이번 행사는 전국 메디바이오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며 실용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메디바이오 사업단



주관 및 참여기관, 전북 지역 협의체 기업 등 30여 명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석해, 최신 기술 동향과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사업 소개 △2026년도 참여기관(경북대

학교 산하협력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지원 내용 발표 △건강기능식품 개발 전략 세미나 △참여자기관 및 기업 간 기술지도와 네트워킹 세션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오상근 기자

농수산대,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주는 나의 한농대 이야기' 공모전 개최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재학생·졸업생·교직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하며, 대학 구성원들의 시선으로 담은 한농대의 이야기를 세상에 선보인다.

한농대는 이달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22일간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주는 나의 한농대 이야기'를 주제로 2025년 한국농수산대학교 사진·숏폼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2023년에 처음 시작된

행사로, 한농대 재학생·졸업생·교직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 캠퍼스의 생생한 일상, 교육 현장, 그리고 한농대인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 대상은 한농대 구성원 누구나이며, 캠퍼스와 실습장 전공 수업, 동아리 활동 축제 등 다양한 대학 생활의 순간들을 자유롭게 표현한 콘텐츠라면 응모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기존 사진 부문에 더해 MZ세대의 트렌

드를 반영한 '숏폼 영상 부문'을 신설해 보다 폭넓은 참여와 창의적 표현의 장을 마련했다.

출품된 작품들은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며, 11월 중 총장상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오는 12월 한농대 본관과 학생회관 등에 전시되고, 한농대 공식 누리집 및 SNS를 통해 외부에도 공개된다.

/오상근 기자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신협 덕진완주평의회와 함께 전주시 만성지구 일대에서 제77회 세계신협의 날을 맞아 '환경정화 플로깅'을 진행했다

전북신협 '환경정화 플로깅' 성료

제77회 세계신협의날 맞아 만성지구 일대서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신협 덕진완주평의회와 함께 전주시 만성지구 일대에서 제77회 세계신협의 날을 맞아 '환경정화 플로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세계신협의 날'은 전 세계에 신용연합운동 정신이 펼쳐진 것을 기념하는 날로 신협의 가치가 시작된 역사를 되새기고, 신협의 성과를 나누고 축하하기 위해 1948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에 기념하고 있다.

전 세계 약 10억 명, 전체인구의 12%가 300만 개 이상의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 취업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약 2만 7,000여 개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6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2023년 6월 기준)

또한 유엔은 2012년에 이어 올해 6월 두 번째로 2025년을 '국제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협동조합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전북신협 임직원 또한 세계신협의 날을 맞아 환경보호 플로깅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이 날도 신협중앙회 사회적응본부와 전북지역본부 그리고 덕진완주평의회 소속 신협직원 45명이 전주시 만성지구 거리로 나섰다. 금번 행사에서는 지난 8월 실시한 플로깅행사의 범위를 확대해 인근 만성북로 일대를 정화했다.

/오상근기자

탄소산업 실태 반영한 통계 기반 구축

탄소진흥원, 탄소소재·부품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가 탄소소재·부품산업의 정확한 통계 기반 마련과 산업 실태 반영을 위한 구체적 논의의 장을 열었다.

두 기관은 최근,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탄소소재·부품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산업 육성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심층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동안 탄소소재·부품산업은 표준 산업분류상 대분류 B(광업)과 C(제조업)에 혼재되어 있거나, 활성탄소·카본블랙·탄소나노튜브·그래핀 등 주요 탄소소재의 경우 독립된 산업분류가 없어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24년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은 '탄소소재·부품산업 통계

조사'를 계기로, 조사대상 기업을 명확히 특정하고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사·분석 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2021년부터 탄소소재·부품산업의 정의 확립과 분류체계 수립, 통계 생산 기반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2024년에는 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해 탄소 섬유·흑연·활성탄소·카본블랙·탄소나노튜브·그래핀 등 6대 핵심 탄소소재를 중심으로 한 특수분류체계 개발 대상 산업군을 도출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산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특수분류 체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대·중·소분류 기준의 적정성, 적용 품목의 타당성, 통계 활용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